

I. 서론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의 편의시설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오사카 BarrierFree 박람회 참관을 통하여 선진국의 장애인용품 및 고령친화용품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그와 더불어 국제장애인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에 관한 서비스를 살펴 봄으로써 우수한 사례를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ATC Ageless Center를 방문하여 일본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그와관련한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고령친화상품 및 교육의 노하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바탕으로 얻어진 우수한 기술과 사례는 향후 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 채용하여 보다 Universal Design에 가까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방문지

- Barrier Free 2008(오사카인텍스홀)
- ATC Ageless Center(ATC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 ITM동 11층 동쪽)
- 국제장애자 교류센터(BIG I)(오사카부 사카이시 마나미구)

3. 일정 및 인원

- 기간 : 2008년 4월 24일~4월 26일 (2박 3일간)
- 장소 : 일본 오사카
- 인원 : 강완식, 이승철, 이진원, 마선미 (총 4인)
- 주요 일정

일자	주요일정
4월 24일(목)	출국(인천공항 ~오사카 간사이공항)
4월 25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C Ageless Center 방문 - Barrier Free 2008 참관 - 국제장애인교류센터 방문
4월 26일(토)	입국(오사카 간사이공항~인천공항)

Ⅱ. 일본의 장애인과 고령친화 전시회 및 시설

1. Barrier Free 2008

(제14회 고령자, 장애자의 쾌적한 생활을 제안하는 종합복지전)

1) 개요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복지기기 및 제품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23개 분야 509개의 업체 및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인텍스오사카에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약 32,400명이 입장하여 복지전 3일 동안 총 97,213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규모로 개최되었다.

2) 주요 사항

- 주최: 사회복지법인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아사히 티비
- 공동주최: 재단법인 오사카부 지역복지추진재단
- 전시장: 인텍스 오사카

3) 주요 전시물



전동 스쿠터

휠체어 사용자 자동차



간이 지지대



전동침대



다리근육 운동기구



가상 스쿠터 운전연습



평형감각 운동기구

4) 향후 전망

일본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및 고령친화제품의 전문적인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매년 일본 전역 및 해외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동경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박람회인 '복지기기 박람회'로 참가업체 및 관람객이 이동하면서 차츰 박람회의 규모가 적어지는 추세라 한다.

2. ATC Ageless Center(개호복지 플라자)

1) 개요

현재 일본의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노령층으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50년이면 일본의 노령층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극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70년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 여가, 직업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Ageless Center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령친화산업의 민간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상품의 전시 및 홍보, 교류를 통한 연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사항

- 설립자: 오사카시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 주식회사
- 주 최: ATC angeless 실행 위원회, 오사카시, 아사히 신문사,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 주식회사
- 소재지: ATC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 ITM동 11층 동쪽

3) 주요 행사

(1) 정보교환

고령자나 장애인, 가족이나 케어사, 헬퍼나 복지 관계자, 복지/개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보교환장소의 역할을 제공한다.



(2) 상품 전시

소비자가 스스로 많은 상품을 보고 비교하며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각종 복지 용구를 전시한다.



(3) 제품 앙케이트조사

관람객이나 자원봉사 단체에 출전 기업의 제품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 및 시장조사를 제공한다.



(4) 세미나/이벤트

전시 기업의 상품에 관한 체험회나 세미나 등의 이벤트를 월 20회 가량 개최하여 헬퍼나 복지 관계자에게 정보수집의 장소를 제공한다.



(5) 연수회

이학요법사나 작업 요법사, 케어 매니저, 헬퍼 등 중간 유저나 복지/개호 시설 관계자, 혹은 복지, 개호 관계의 연수회 장소를 제공함.한다.



(6) 비즈니스 매칭

전시 기업간의 공동연구나 합작, 정보 교환이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및 행사를 개최한다.



(7) 전시장 관람 및 체험



고령자 유사체험

휠체어체험

전동스쿠터체험



장난감

유니버설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4) 향후 전망

약 50개의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입주형으로 운영되었으나 전국에 걸쳐 판매점, 대어점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현재 약25개의 기업만이 입주하고 있다.

기업입주형태이나 제품의 문의, 판매, 설명은 센터에서 운용중인 직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직원은 센터 채용 및 관련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이 축소될 전망으로 전시장 일부에서는 타사업을 위한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3. 국제장애자 교류센터(BIG I)

1) 개요

국제장애자교류센터(빅아이)는 장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배리어프리 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실, 최대 300석의휠체어석이 들어가는 다목적홀 등이 마련되어 장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진 시설이다.

이 곳에서 가까운 역인 「이즈미가오카」 역 주변은 복지거리 창조모델 지역으로서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으며 또한 위치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교토에서는 약 56분걸릴 정도로 매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빅 아이의 쾌적한 공간을 즐기며 연수회, 회의, 발표회, 콘서트 등 장애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주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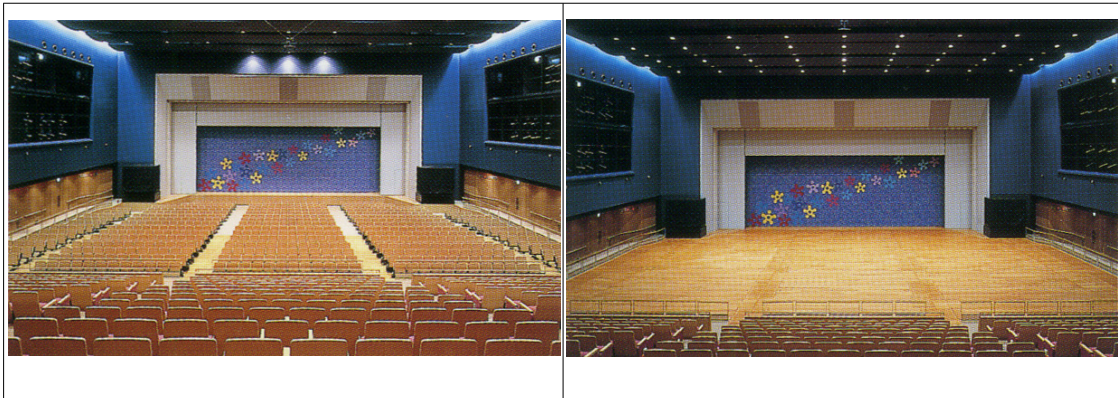
(1) 오사카현이 소유한 시설로 3년마다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2) 시설 개요

- 다목적 홀: 객석 최대약1,500명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약1,000명(휠체어석 최대 약300석포함)
- 숙박시설: 35실 침대방, 다다미방, 침대방+다다미방, 침대방(중증장애자용)
- 레스토랑: 50석
- 연수실: 대-약150명, 중-약90명, 소-약60명대 건물외27대 혹은 대형차8대
- 주차장: 건물내80대
- 세탁장: 세탁기2대

3) 주요 시설

(1) 다목적 홀



전부 객석으로 바꾼 패턴

앞좌석 전부를 휠체어용으로 바꾼 패턴

각종 강연회, 심포지엄, 문화예술 이벤트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객석은 최대 500명(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약 1000명휠체어석 최대 약300석)을 수용이 가능하다. 전면 평면등 바닥의 단차를 조정할 수 있는 승강바닥시설을 완비하여 6패턴의 회장 레이아웃이 가능하며, 또한, 한번에 3개국어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통

역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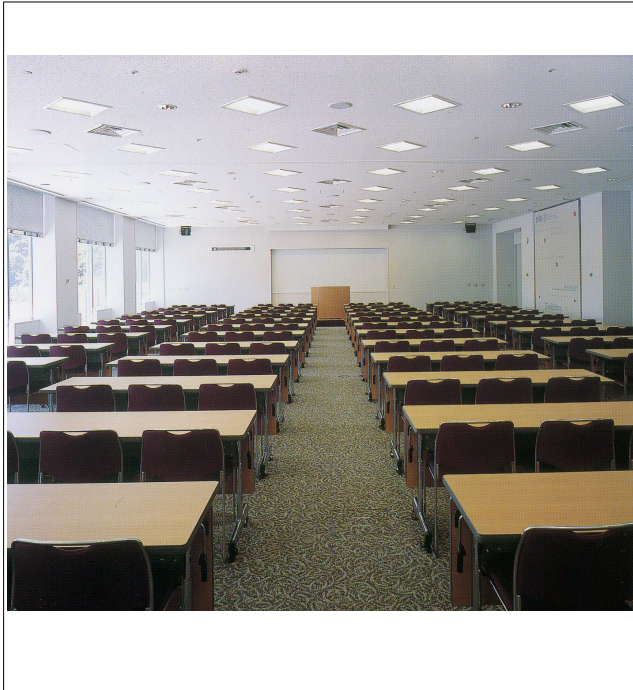
객실(침대방)

객실(침대방)(천정주행승강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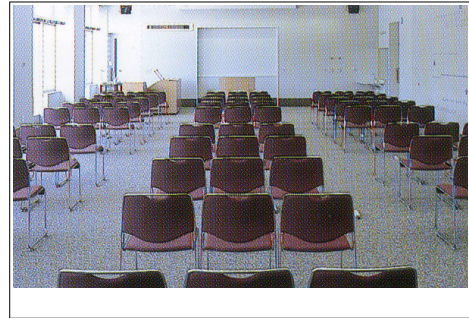
일본의 보통의 숙박시설과는 달리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 휠체어나 기타 장애인 등이 활동하기 편안하며, 우아한 색조의 인테리어로 장애인과 노인, 그 가족이 느긋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가급적 단차를 제거한 평면바닥과 이동동선에 맞는 핸드레일 등을 설치한 배리어 프리사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정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이동에 용이한 객실과 재해시에 통지시스템도 완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3) 연수실



연수실(대) 약150명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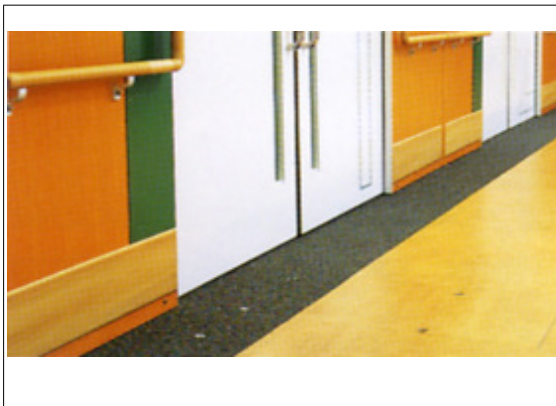
연수실(중) 약90명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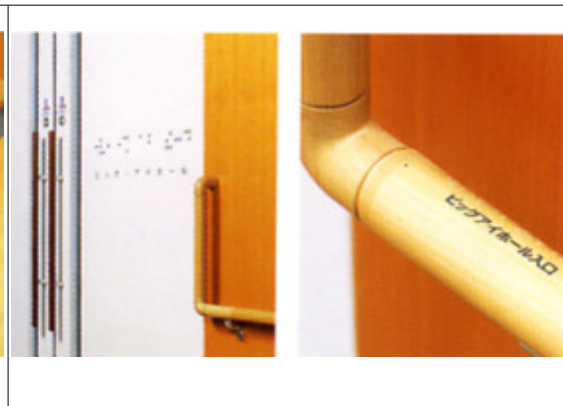
연수실(소) 약60명 수용

회의나 세미나, 연수, 평생교육, 전시등 각종 모임에 편리한 사이즈의 대, 중, 소 연수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책상, 의자는 자유로이 이동이 용이하여 다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연수실을 분리할 수 있다.

(4) 기타 편의시설



복도의 유도판넬을 카펫트로 설치



문과 난간에 점자안내

실내의 경우 점자블록을 대체하여 카펫으로 유도동선을 확보 하였으며, 이동동선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을 더욱 도모하였다.

화장실, 연수실의 입구 등 정보를 주어야 할 곳에 가시성을 확보한 대형 안내표시와 이를 양각과 더불어 점자로 함께 설치하여 베리어프리를 실현하고 있다.

Ⅲ. 결론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 14회 BarrierFree 박람회 참가와 국제장애인교류센터, ATC Ageless Center 등의 시설을 방문하여 일본의 장애인 및 고령친화산업의 발전현황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첨단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용한 장애관련 제품 및 주거환경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덜 불편을 느끼며, 덜 소외되고 배제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둘째, 장애인 등이 편리한 BarrierFree(무장애) 공간의 확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장애를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은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26년이면 인구의 5분의 1을 노인인구가 접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령층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의 여러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의 채용사례 및 기술 발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일반인 모두 전반에 걸친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 이외의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 보다 폭넓은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